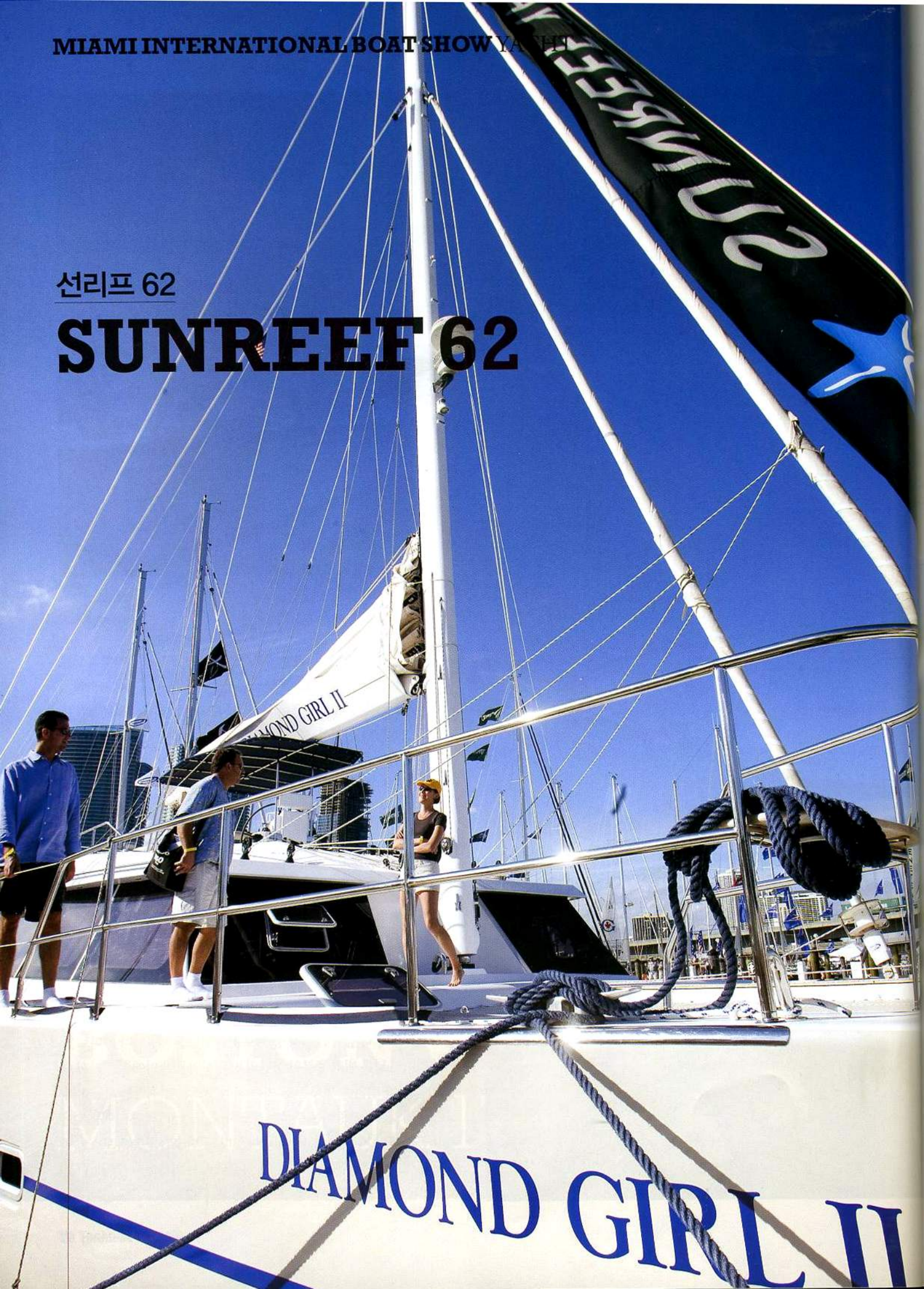


선리프 62

SUNREEF 62



DIAMOND GIRL II

2000

년, 기업의 현 회장인 프란시스 램은 선리프 요트 기업을 설립하였다. 전세계 여행을 기업의 목적으로 두었던 이 폴란드 회사는 2004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선박건조라는 새로운 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회사의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첫 번째 쌍동선이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카타마란으로서는 최초로 외부 플라이 데크를 더하게 되면서 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카타마란 중 가장 작은 모델인 선리프 62는 선리프 74의 후속 제품으로 최첨단 기술과 월등한 품질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으며, 웅장하고도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해주는 것에 그 목적을 두었다. 선리프 62 역시 플라이 데크가 더해져서, 외부 개방형 항해를 즐기는 승객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준비를 마쳤다. 선리프는 단순함과 우아함을 조화시켜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을 완성해냈으며 친근하고도 세심한 마감 처리로 구성되어 있어 마치 집에 온 것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해준다. 장식의 최소화와 우수한 색상 선택은 완전히 새롭고도 신선한 외양을 돋보이게 하고 있으며 마감 처리는 완벽하게 처리된 윤곽선을 따라 이루어졌다. 선리프의 인테리어 디자인은 가족을 위해 안락하고 편안한 이상적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우아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M**

www.sunreef-yacht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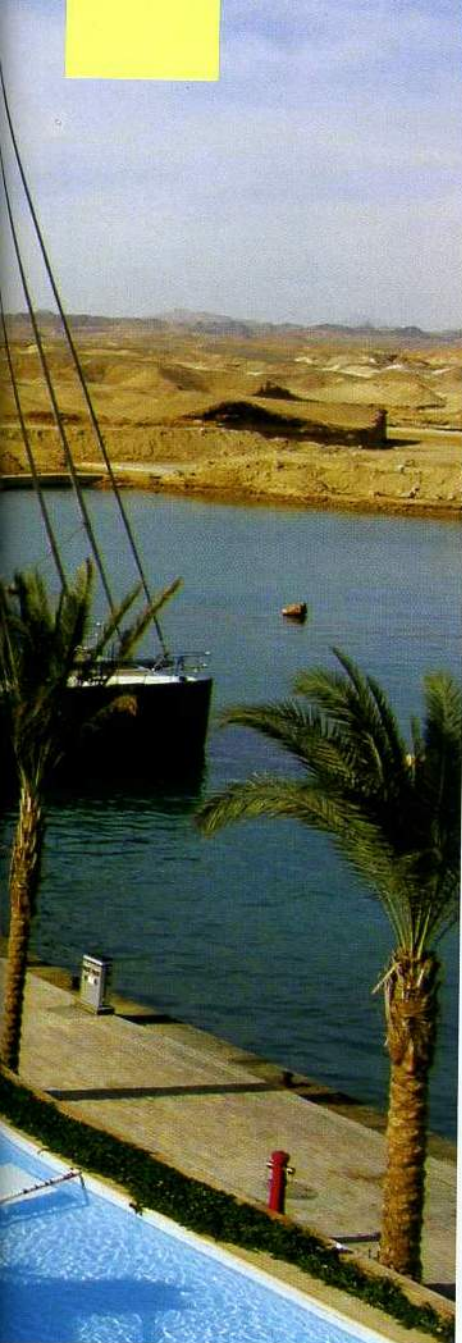




요트로 이룬 세계 일주의 꿈

로이와 재니스, 그 발자취를 따라

네덜란드에서 저녁을 먹고 출발해 프랑스에 도착했다. 충분한 시간 동안 프랑스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들의 문화와 음식에 흠뻑 취하고 난 뒤 스페인으로 향했다. 이미 세계의 많은 나라를 돌아보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목이 마르다. 그래서 오늘도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푸른 바다에 몸을 맡긴다. 세계일주. 오랫동안 간직했던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요트와 함께. 에디터 김영리 기자 | 자료제공 선리프 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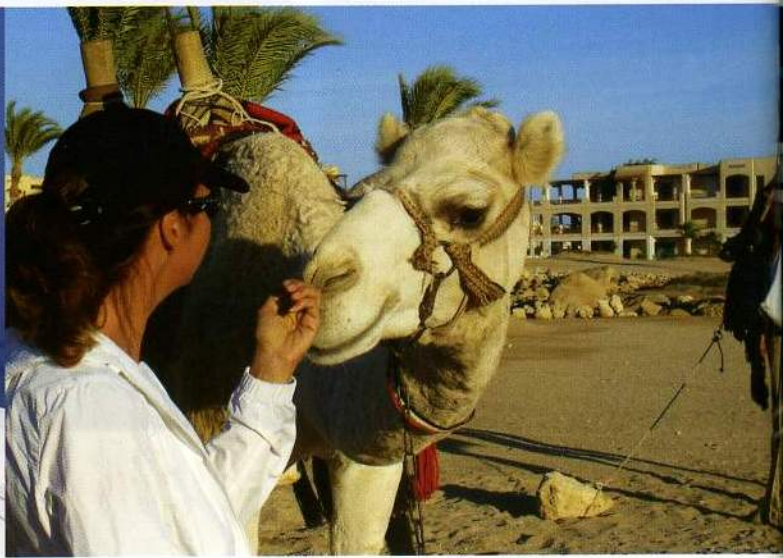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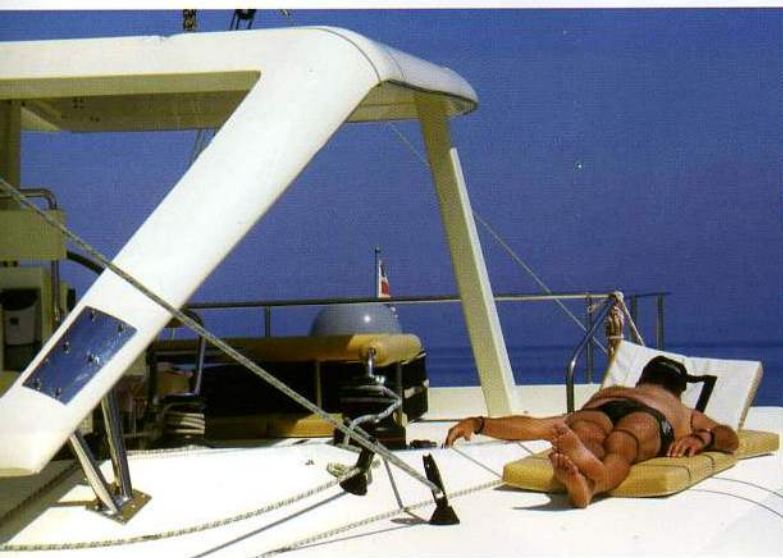
로이와 재니스가 세계를 돌며 만난 멋진 풍경들. 그래도 로이에겐 재니스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

인 생은 60부터라고 했던가. 2006년 4월 1일. 은퇴를 하고 노후 생활을 즐기려는, 용감하고 모험심 가득한 두 명의 오스트리아인 부부, 로이와 재니스(Roy and Janice)가 폴란드의 카타마란 제작사, 선리프를 찾았다. 모험을 즐기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으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요트를 타고 대양을 항해하며 하는 세계여행.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모험이자 평생을 두고 지켜온 꿈이었다.

첫 출발, 그 설레임의 시간

선리프 요트의 조선소가 있는 그단스크에서 로이와 재니스는 새로 건조된 선리프 62 '트리거' 와 함께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다. 다이빙을 좋아하기도 하는 그들

은 가장 멋진 다이빙 장소를 찾고 싶어 했고, 첫 번째 목적지로 그리스의 작은 다이빙 지역을 택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많은 곳을 먼저 들려야 했다. 폴란드 지역을 돌며 겨울을 난 그들은 독일의 킬 운하를 선택해 덴마크 해협으로부터 벗어났다. 유틀란드 반도를 돌아가는 시간을 절약하면서 불안정한 북해를 피해 항해를 지속했고, 그들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 정박하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밤을 지낸 뒤 프랑스에 도착한 그들은 뉝케르크, 세인트 말로, 브레스트, 라 로셴 등 프랑스의 여러 지역을 거치게 된다. 각 지역마다 있는 계류장에 요트를 정박시켜 놓고 프랑스를 구경하면서 각 지역의 문화와 멋스러움, 특히 프랑스의 풍부하고도 맛있는 요리에 감탄한 그들은 예정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프랑스에 머무르게 된다. 능숙한 요리사이기도 한 재니스는 프랑스의 각 지역에서 경험한 새로운 맛을 트리거 안에서 펼쳐 놓는다. 파란 바다 위에 떠 있는 트리거 콕핏 위의 식탁이 그누구도 쉽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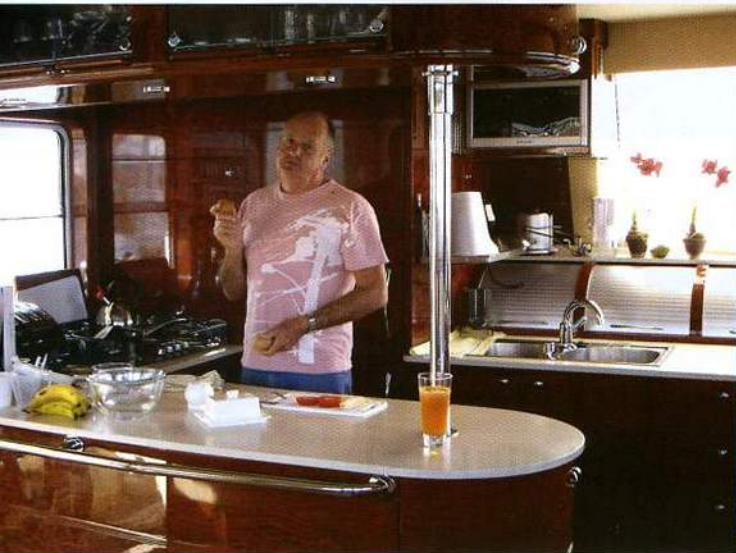


가 볼 수 없는 멋진 레스토랑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푸른 바다와 풍요로운 햇살, 하얀 요트 위에서 세계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프랑스 요리를 먹으며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바래왔던 그 꿈의 한 가운데에서 있었다.

환상적인 시간이 계속되다

프랑스를 떠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포르투갈의 카시카이스였다. 형언할 수 없는 장관이 펼쳐진 알그레이브의 해변가를 거쳐 지브롤터로 가는 도중, 지브롤터 바위와 유럽에 있는 유일한 야생 원숭이인 바바리 원숭이를 만나는 행운을 얻었다. 거기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대의 성을

찾아 고대 유럽의 정취를 흠뻑 느끼기도 했다. 여행이 계속될 수록 발레아레스 제도와 이비자 섬과 같이 아주 흥미롭고 환상적인 광경을 선사하는 새로운 장소를 발견해 나갔다. 뜨거운 여름 햇살이 비치는 하얀 모래 백사장이 끝없이 펼쳐진,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서지중해의 멋진 산책길을 발견한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 최고의 행운이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부인과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하얀 모래 백사장 위를 맨발로 걷는 기분, 어느 누가 몇 마디 말로 형언할 수 있으랴. 이탈리아의 멋진 맛과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사르디니아와 시칠리아를 거쳐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했다. 폴란드를 떠난 지 꼭 3개월이 되던 날이었다. 이오니아인들의 멋스러움, 아름다움과 풍부



함, 고대의 웅장한 국가에 속해 있던 수많은 섬들은 로이와 재니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다. 첫 번째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지만 그들이 지나왔던 수많은 경험과 환상적인 시간들은 그들을 더욱 목마르게 했다. 흥해를 탐험하고 바다와 세계의 멋진 보물을 찾기 위해 그들은 또 다시 배를 출항시켰다. 오스트리아와 세이셸을 향한 모험을 지속하기 위해서였다. 세상을 탐험하며 정복해가는 로이와 재니스, 그리고 트리거, 이 멋진 트리오는 현재 오스트리아를 거쳐 이집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으며 인도양의 세이셸 섬으로의 여행을 앞두고 있다. 멋진 선장과 최고의 요리사, 그리고 트리거. 신선한 바람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는가. **M**

www.sunreef-yachts.com

전 세계를 돌며 눈과 마음에 담는 세계의 풍경,
그리고 바다. 로이와 재니스에게는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요트를 타고 세계여행을 하면서 접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삶이 되고 인생의 조각이 된다. 요트위에 있든, 요트에서 내려 세상을 향하건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순간들이다